

LG화학, 여수공장 녹색기업 지정 취소

LG화학(대표 박진수)은 3월29일 여수공장(용성)의 녹색기업 지정을 반납해 지정이 취소됐다고 공시했다.

LG화학은 2012년 12월20일 여수(용성·화치), 익산, 울산, 나주 등 5개 공장이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.

<화학저널 2013/04/01>